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정산필 베드로

(? -1799)



충청도 덕산의 양인 집안에서 태어난 정산필은 괄괄한 성격에 힘도 예사롭지 않아 많은 이가 그를 무서워하였다. 그러나 입교한 뒤로는 겸손하고 온순해져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하였다. 1794년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했을 때, 그는 주 신부를 찾아가 세례를 받았다. 이후 내포 지역 회장으로 임명되어 부지런히 기도와 독서를 하며 교우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격려하였다.

정산필이 체포된 해는 1798년 또는 1799년으로 추정된다. 그는 덕산 관아로 끌려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할 땐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한다. 마침내 사형 집행일,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음식을 먹으며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천주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음식이니,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먹읍시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형장으로 나가 순교하였으니, 때는 1799년,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에서 60세 사이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주님 승천 대축일 · 홍보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1-11

화답송

시편 47(46),2-3.6-7.8-9(◎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찬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우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에페 1,17-23 <또는 히브 9,24-28; 10,19-23>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루카 24,46-53

영성체송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요나의 회개



요나의 고향 갓 헤페르 (현재 지명 마쉬헤드)

열왕기 하권에 따르면, 요나는 “갓 헤페르”라는 갈릴래아의 성읍 출신으로 예로보암 2세 때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이 임금이 되어…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갓 헤페르 출신으로 당신의 종인,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다”(14,23-25).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비둘기가 전령 구실을 하였듯이, 요나도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요나 3,1-10). 비둘기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므로(시편 74,19), 요나는 하느님의 맡아들로서 세상 만민에게 주님을 알려야 하는 이스라엘(탈출 4,22)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비둘기처럼 어리석게’(호세 7,11) 행동하는데, 하느님께서 바다와 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도(요나 1,9) 그분을 피해 바닷길로 도망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창조주이신 하느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니네베로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서 최대한 멀어지려는 발버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라는 이름은 제 집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 비둘기처럼(호세 11,11)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가리라라는 점도 암시해줍니다.

한편, 요나는 ‘억압을 일삼다.’라는 뜻도 지닙니다(스바 3,1). 요나의 활동 시기가 예로보암 2세 시대임을 고려하면, 이 이름 뜻 역시 그가 받은 소명과 역설적으로 합치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머물며 죽음의 위기

를 넘긴 그가 주님의 명령대로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서 신탁을 전한 뒤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데, 이후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억압하고 침공하여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요나는 2열왕 14,25에서 북왕국의 성공에 관하여 예언하였지만, 요나서에 따르면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아시리아의 구원과도 관련된 일을 한 셈입니다.

다만 요나서는 역사성이 거의 없는 책입니다. 요나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열왕기에서 빌려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를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해 보입니다. 우선, 남왕국은 북왕국 임금 예로보암 2세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성공을 예언한 요나도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거란 점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하느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인물로 묘사했을 수 있습니다. 곧 요나는 악한 북왕국에는 번영을 예고하고 이방 성읍에는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걸 싫어한 인물로 그려진 셈입니다. 또한 요나에 관한 정보가 성경에 많지 않은 점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나가는 데 좋았을 터이고, 비둘기를 뜻하는 요나라는 이름도 교훈 전달에 적합하였을 것입니다. 비둘기가 집을 잊지 않고 돌아오듯, 다윗 왕실에서 떨어져 나간 요나의 북왕국도 결국 하느님께 돌아오리라라는 암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홍보 주일입니다. 냉담 교우들이 요나의 비둘기처럼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때입니다. 또한 나와 결끄러운 관계에 있는 이들도 주님의 관심을 받는 아들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는 한 주로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2)

「교회헌장」 7항 후반부

「교회헌장」 7항의 전반부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은 모든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모습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박해를 받지만,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결합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니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결합을 통해 지체들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성장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봉사 직무의 은총을 끊임없이 주시어, 신자들은 그 은총으로 구원을 위하여 서로 봉사합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합니다.

머리와 몸의 결합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새로워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머리와 지체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신자들을 일치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령의 이러한 임무는 교부들에 의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서 하는 일에 비교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 곧 교회와 맺으시는 관계가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가지는 관계와 같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에 비유됩니다(에페 5,21-33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신부처럼 사랑하시고, 교회는 자기 머리이신 그

리스도께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육신(인성) 안에 머무르고 있으므로(골로 2,9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당신의 신적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은총으로 교회는 하느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잔 로렌초 베르니니 작, 성 베드로 대성당 제대 뒤편의 성령 비둘기 유리화.
머리와 몸의 결합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는 성령의 성전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라는 비유는 복음서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요한 3,29). 주님께서도 바리사이들과의 단식 논쟁에서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마르 2,19-20)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로 약혼한 신부라고 표현합니다(1코린 6,17; 2코린 11,2 참조).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은 큰 신비입니다. ☪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마리아 막달레나

후경에는 각양각색의 나무와 풀꽃이 만발한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녹음이 우거진 정원 좌측에는 문이 활짝 열린 큰 바위가 있고, 한 여인이 무릎을 꿇혀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두 팔을 내뻗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기대와 갈망은 광적인 열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느님을 모독한 자라는 죄명으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비극적인 운명. 물론 그분의 고결한 희생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예정된 바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스승의 시신을 내려 돌무덤에 매장한 제자들이 느낀 감정은 깊은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부활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요한 20,1). 서서히 밝아오는 이른 아침, 곱게 빛나는 오렌지빛 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붉은 십자가가 드리운 후광으로 빛나는 분은 칠혹 같은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얼마 전까지 온몸을 감고 있던 수의는 축복의 빛을 담은 순백의 옷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막달레나는 누군가 시신을 꺼내간 줄 알고, 제자들에게 성급히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다시 돌아와 흐느끼던 그녀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성화는 막달레나가 주님을 알아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원한 빛’에 싸여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분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니,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요한 20,17).



프라 안젤리코(1440~1455), 〈나를 만지지 마라〉, 1440~1442년, 프레스코화, 176cm×148cm, 제1수사 방, 산 마르코 수도원 (이탈리아 피렌체)

이제 지상 여정의 임무를 완수하고 하느님께 가고자 조심스레 발을 떼어 우측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따뜻한 시선은 막달레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막달레나의 드레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렌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상낙원을 연상시키는 울타리 처진 정원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독일의 슈퍼커(1916~2008) 수녀는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은 떠남과 머무름의 관계를 알려 주고, 저 부활 날 아침 이후로 ‘신앙의 장도(壯途)’에 오르는 우리의 자세를 일깨워준다.” 두 사람 뒤로 서 있는 종려나무 한 그루가 ‘떠남과 머무름’의 미묘한 경계를 표현해 줍니다. 이는 ‘죽음과 삶’ ‘절망과 희망’의 균형도 알려줍니다. 고요한 평화와 은총이 충만한 성화를 그린 이는 ‘축복받은 천사와 같은 형제’(Il Beato Fra Angelico)라 불리는 성도 미니코 수도회의 ‘프라 안젤리코’입니다. 피렌체의 산 마르코 수도원은 그의 프레스코화로 가득합니다. ●



교구
소식

한마음 사계 피정 - 6월, 7월 (대침묵 피정)

주제	일시	강사
예수 성심을 닮은 신앙인의 삶	6/6(금) 16시 ~ 8(주일) 13시	김경진 베드로 신부
사랑을 만나다, 사랑을 살아가다	7/4(금) 16시 ~ 6(주일) 13시	김성우 이사악 신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청년 전례 아카데미 2 - 르네상스와 성 베드로 성당

A차: 6/14(토) 15:30~17시,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B차: 6/21(토) 15:30~17시,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강사 강한수 가롤로 신부 (사목연구소 및 건축신학연구소 소장)

대상 청년 및 교리교사 (선착순 30명) 회비 1인 2만원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 A차, B차 동일한 교육입니다

신청 ▶



청년센터 프로그램 - 마음챙김 그림책 테라피 2기

주제 그림책으로 쓰다듬는 나의 마음

일시 6/14, 28, 7/12, 26(토) 14:30~16:30

장소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대상 만12세~40세 (선착순 8명) / 회비 무료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내용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6/13(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중등부, 고등부 1~2학년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6/15(주일) 10시

장소 해화동 대신학교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6/9(월)까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조희중 사도요한, 임병진 베드로, 진해주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의정부교구청 홍보국 직원 모집 - 육아휴직 대체

업무 디자인 및 일반사무 [계약직]

자격 포토샵, 일러스트 사용 가능자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근무 2025년 8/25(월) ~ 2027년 1/8(목)

접수 7/4(금)까지, 이메일 jubo@uca.or.kr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신부님 추천서, 졸업증명서, 포트폴리오

문의 031-850-1433~5 홍보국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전신자 성경 읽기

6/1(주일)~7(토) : 요한 9,35-10,6



6/28(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헌금
결과보고

지난 4월 13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헌금으로 145,563,120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사회사목국으로 보내져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4월 18일 성금요일,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헌금으로 105,237,170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통해 교황청으로 보내져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미사 · 피정 ▶▶

천마 성당 예수성심성월 성령 하루 피정

일시: 6/6(금) 09:30~16:30, 천마 성당 대성전
강사: 김경희 루시아 수녀, 김대영 베드로 신부
미사: 하정호 안드레아 신부 (천마 주임)
회비: 5천원 (티켓, 점심제공)
문의: 010-9770-0146 박테레사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6/6(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성녀 파우스티나
강사: 김영철 베드로 신부
문의: 010-2127-0032

프란치스코 성체단식 피정

날짜: 매월 셋째 금~주일 (2박3일)
장소: 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양평수도원
주제: 비움에서 충만으로 / 회비: 25만원
문의: 010-8858-7814 구원도 신부

6월 메주고리에 성시간

일시: 6/2(월) 10시~16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강사: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
문의: 010-3310-8826, 02-874-6346

청주 조정성령회관 성령강림대축제

일시: 6/8(주일) 09시~18시 (중식제공)
강사: 한연흠 다니엘 신부, 한영림 수산나
미사: 윤창호 도미니코 신부
장소: 조정성령회관 (서틀버스운행)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교구성지순례(추자도포함):
6/21(토)~23(월), 7/1(화)~4(금)
여름피정(우도섬포함): 7/18(금)~20(주일),
7/22(화)~24(목), 7/26(토)~29(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일시: 6/8(주일) 10시~16시 (09시 미사 참석가능)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 (4호선 미아역)
주제: 은총의 통로, 미사 (빛의 신비 5단)
강사: 김 마리아 제수이나 수녀
내용: 미사 준비와 참여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성체성혈 대축일 대피정

일시: 6/23(월) 13시~16시
장소: 명동대성당 / 회비: 3천원
주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강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임승철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미사: 추기경님 외 사제단
주최: 서울대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
문의: 02-773-3030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6/20(금)~23(월), 7/18(금)~21(월),
7/25(금)~28(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별 출장 피정 가능)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6/3 박현민 신부, 6/10 진홍장 회장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화장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6/6(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토요성모신심 기도회 미사: 6/21(토) 10시~12시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6/27(금)~29(주일)
대침묵피정: 7/24(목)~27(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미사

일시: 6/6(금) 16시 (성시간 15시)
19:30 (성시간 18:30)
장소: 고양시 덕양구 삼막2길16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신청 필수)

가톨릭축제 마음치유 페스타

일시: 7/11(금) 15시 ~ 13(주일)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형성센터
회비: 25만원 (접수 후 입금)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6/28(토)~29(주일), 8/30(토)~31(주일)
2박3일: 6/23(월)~25(수)
3박4일: 6/5(목)~8(주일), 7/3(목)~6(주일)
8박9일: 6/12(목)~20(금), 7/10(목)~18(금)
40일: 10/14(화)~11/22(토)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일시: 6/22(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지하1층 대강당
주례: 김종민 F.히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루시아



교육 · 모집 ▶▶

행신2동 성당 관리인 채용

자격: 고졸 이상, 세례 받은 교우
업무: 시설관리, 영선관리, 경비 등
접수: 6/20(금)까지
문의: 031-979-4071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예수회 센터 여름방학 특강 - 7월 개강

근/현대 문화유산 교회사: 이진현 신부
월요무료피정: 의식성찰-그리스도의 사선: 이근상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사무엘기, 열왕기: 주원준 박사
예수의 윤리 이야기: 덕, 평화, 공동체: 박상훈 신부
인간과 창조: 바오로의 관점: 김민철 신부
각 6주/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kr

원어 성경 기초반 - 히브리어, 그리스어

일시: 7월부터 매주(수) 19:30~21:30 [12개월]
회비: 30만원 x 4회 (총 120만원) - zoom 강의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 (작은형제회)

성경통독 & 길잡이 맥 도형

성경을 읽고, 살고, 선포!
도형틀(마인드맵)을 통해 각 장의 내용을 외우며 통독
일시: 6/4(수)부터 [오전] 10시~12시, [오후] 18시~20시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중동역 5분거리)
대상: 누구나 / 회비: 1만원 (교재비 2만원 별도)
준비물: 성경 / 문의: 010-3248-9705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모짜르트 대관식미사 연주 (고양아람누리)
문의: 010-9842-8818 (남성단원환영)

에파타합창단(혼성) 정기단원 모집

연습: 매주(금) 19:30
장소: 녹양동 성당 3층
인원: 각 파트 〇명
문의: 010-5610-2327 박준희 스테파노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 투어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복음화학교 제43기 개강

복음화 사도회는 신자들의 새로운 복음화와 복음적 삶의 실천을 통해,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는 신자 재교육을 위하여 복음화학교를 개강합니다.

개설장소: 호평동성당 / 교구청 / 마두동성당

5/27(화) 19:30, 호평동 성당

6/4(수) 11시, 교구청

6/10(화) 11시, 마두동 성당

문의: 010-5182-3066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봉사자 모집

내용: 비행 청소년 멘토링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접수: 6/30(월)까지

대상: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에서 활동 가능한 60세 이하 신자

문의: 031-856-0213~5 교정사목위원회

성체조배 교육 8주간

일시: 6/7~7/26, 매주(토) 10:30~13:30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원 (4호선 미아역)

주제: 성체조배 - 기도에 관한 교육

강사: 김 마리아 제수이나 수녀

문의: 010-9742-3842, 02 984-4801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정규직(시설기술직) 신입 모집

홈페이지-성신광장-모집공고

문의: 02-740-9707~8

<https://songsin.catholic.ac.kr>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치위생사, 행정(인사, 총무)

문의: 02-2634-1760

※ www.josephclinic.org-공지사항 참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계근무자 모집

분야: 여름신앙캠프 보조지도, 야외수영장 근무 (가드, 간호사)

접수: 6/28(금)까지

이메일 service@hanmaum84.com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2025 어머니·아버지학교 온라인 Zoom 교육

주제: 자녀에게 신앙 이어주기

일시: 6/27~7/18, 매주(금) 19:30~21:30 [4주]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이세라 연구원

접수: 6/22(주일)까지 / 회비: 4만원

주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문의: 02-744-0840

※ 사전모임 (6/25(수) 20시~20:45) 참석 필수



안내 · 기타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조기개장

주말개장: 6/6부터 매주(금~주일)

상시개장: 7/18(금)~8/17(주일)

개인 및 단체 하루 이용 가능 / 그늘막, 주차 무료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고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노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5(월) 프랑스 리지외, 루르드 (12일)

9/17(수)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9/19(금)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9/24(수) 희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20(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8(목) 이태리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9/4(목) 북유럽의 진주 - 발트 3국 (9일, 460만원)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원)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대항항공)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일시: 월~금, 10시~16시

내용: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9/15(월) 나가사키 (4일, 119만원, OZ)

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495만원)

10/17(금) 나가사키 (4일, 139만원)

10/14(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399만원)

10/22(수) 산티아고순례길과 포르투갈 (13일, 495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1/2(주일), 11/9(주일)

희년 이탈리아 (7일, 2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 소 모 임	성심수녀회	6/21(토) 15시~17시	성심수녀회 본원 (원효로)	010-5696-2331
	사랑의 씨앗 수녀회	6/14(토) 14시~17시	카라의 들 (4호선 한성대입구역)	010-5528-3217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주님의 기도 (Oratio Dominica)

미사 중 감사기도가 끝나면 영성체 예식으로 넘어갑니다. 영성체 예식의 시작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때, 사제는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라고 말하며 모두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고 초대합니다. 참고로, 이 초대 문구에도 반영되어 있듯 본래 주님의 기도는 세례받은 신자들만 바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들만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른 입교 예식」 중 ‘주님의 기도 수여식’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제의 초대 권고 이후 ‘주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미사 중, 특히 영성체를 앞두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일상에 필요한 양식 외에 천상 양식인 성체와도 연관됩니다. 또한 죄의 용서를 청하는 건 영성체를 준비하는 이의 합당한 기도입니다. 4세기까지는 주님의 기도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 영성체를 위해 빵을 쪼갠 다음에 바쳐졌으나, 6세기에 이르러 대 그레고리오 교황(590~604 재위)은 이 기도를 감사기도의 연속으로 생각하여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사제 혼자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신자들은 마지막 청원, 곧 “악에서 구하소서.”만 바쳤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기도를 공동체의 기도로 복원하여 현재는 첫 구절부터 모든 이가 함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제가 팔을 벌리는 자세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전형적 자세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이어, 사제는 혼자 부속 기도(Embolismus)를 바칩니다. 부속 기도는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어받아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안고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기도를 마치는 영광송이 나옵니다: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지난 주에도 언급했듯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찬미가나 주요 기도를 영광송으로 끝맺곤 하였습니다.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하여 주님의 기도와 부속 기도를 바친 공동체는 하느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영광송은 주님의 기도와 부속 기도에서 공동체의 응답이기에, 전형적인 전례 응답인 ‘아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미사 중 주님의 기도 끝에는 ‘아멘’을 생략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행 주 성 당  성모몽소승천	토 요 일	19: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6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이중철 베드로, 조금희 수산나, 장석준 바오로
장근완 마르첼리노, 김 수산나,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6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례

■ 6월 성시간

일 시: 6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분 들이 참석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6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6월 01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양경희(루시아), 류은희(소피아)	
06월 08일	주송자	오정화(아네스)
	김남일(미카엘), 배현숙(헬레나)	

본당공지

■ 6월 봉성체

일 시: 6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6월 사목협의회의

일 시: 6월 15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2025년 교무금 책정 세대

세대수	책정세대	책정률
76세대	44세대	57.89%

※교무금 책정을 하고 매월 납부하여 주시면 본당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5월 19일 - 5월 25일)

교 무 금	6건	560,000원
주 일 헌 금		1,050,000원
청소년 주일 2차헌금		580,000원

■ 감 사 헌 금

김홍연	50,000원	김현훈	10,000원
익명	50,000원		

- 복음 말씀 -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행주성당의 성역화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